



# 양계업계 뉴스 초점

홍보팀

## 닭고기 수입자제 요청

### 본회, 국내 수입업체에 자제 요청

본회는 지난 IMF 이후 주춤했던 닭고기 수입이 국내 육계가격 회복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대량 수입업체에 닭고기 수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999년의 닭고기 총 수입량은 45천톤을 상회하여 국내 생산량의 약 12%를 점하고 있어 생산기반이 급격히 저하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금년 1/4분기까지 이미 약 19천톤이 수입이 되어 이런 추이로 간다면 수입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긴급히 수입업체에 수입자제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 국내계란 일본 수출길 열려

### 에덴농장 월 120만개 선적키로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이 조만간에 사상 처음 일본 수출의 문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서 1996년부터 산란계 4만여수를 사육하는 에덴농장(대표 정연화)은 1998년부터 일본의 JRC배합사료 제조업체의 기술을 도입하여 계란을 생산하여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에 검사의뢰한 계란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아 리보통상에 의뢰하여 일본 전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구마현 소재 K마트에 월 120만개의 계란을 해당 65원에 수출키로 하고 계약을 마친상태이다. 수출가격은 일본내 시장가격이 5% 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조정되는 조건인데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선적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져 왔다.

## 계란소비 확대 위해 우수성 홍보

### 팜프렛 제작하여 각계에 배포

본회는 난가가 장기간 하락되어 채란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를 조기에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란요리 책자 5,000부, 우수성 홍보용 팜프렛 2만부, 스티커 2만매를 제작하여 서울시 각급 초등학교 급식 담당 영양사, 대기업체, 광역시 및 각도 교육청, 소비자 단체, 한국요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서울시 각 구청, 대공원, 마사회, 축산관련 단체 등에 각각 「우리계란·닭고기」 소비확대 협조 요청서와 함께 배포하여 어려운 양계농가의 현실을 알리고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소비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요리책자 및 팜프렛은 채란인이 조성한 자조금으로 제작되었다.

##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근절협조요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력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극대화 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축산물 유통업자들이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본회등 축산관련 단체에 축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본회는 각 지부 및 분회에 이 같은 내용의 회시를 통해 수입된 양계산물이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시 허위표시, 둔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입 닭고기 국내 유통경로 조사

### 단계별 가격 및 소비행태 파악될 듯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와 종계분과위원회는 닭고기 수입이 본격화 되는 것과 관련하여 수입 닭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키 위해 전문가에게 분석을 용역식으로 의뢰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수입닭고기는 닭갈비나 가공용원료육으로 한정되어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력을 세우기 위해 이 같은 유통경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사기관과 조사기관은 본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대학에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금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 양계산물 가격 등락 폭 끊듯

### 특수기대 너무 커 생산량 증가

금년 들어 바닥세를 면치 못했던 양계산물 가격이 부분별로 차이는 있으나 4월 들어 일제히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계절적인 소비 증가의 요인과 타 업종에서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특수도 한 끗을 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양계인들의 가격상승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출하를 지연하거나 노계 도태를 미루는 등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격 등락이 심화될 여건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